2009학년도 경찰대학 제1차 시험 (언어영역)

※ 총 12쪽 5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은?

①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②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③ 지금 우리는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나라를 평화와 번영, 그리고 도약의 시대로 이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④ 이번 개혁안은 확고한 전쟁 억제를 위한 대비 태세 확립과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목적 아래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⑤ 구성원들은 소외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문제 해결과 한번 결정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2. 다음은 정부 기관과 기업체 홈페이지의 인사말이다. 띄어쓰기가 올바로 된 것은?

① 가동 3년만에 최적의 생산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② 우리 위원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한 돌이 지났습니다.
③ 빠른 시일 내에 다음의 세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④ 그 피해가 한 순간에 일어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⑤ 이 같은 성과는 건전한 경영을 바탕으로 국민 보건의 향상에 힘을 쏟은 결과입니다.

3. 다음 중 사이시옷에 관한 표기가 <u>잘못된</u> 것은?

① 윗층
② 마구간
③ 머리말
④ 북엇국
⑤ 예삿일

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 중 어문 규범에 맞는 것은?

① 우리는 과감히 첫발을 <u>내디뎠다</u>.
② 살을 <u>에이는</u> 듯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③ 고객의 만족도를 <u>높힐</u> 수 있도록 하겠다.
④ 이것은 더위를 타지 않고 입맛을 <u>돋구는</u> 효과가 있다.
⑤ 그들의 이야기에 <u>끼여들기</u> 싫어서 신문을 보는 척하였다.

5. 다음은 중앙 일간지에 실린 기사문 중에서 단어 선택이 잘못되어 고쳐쓰기를 해야 할 것을 모은 글이다. 고칠 필요가 <u>없는</u> 것은?

① 그가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과거 지지 세력의 무분별한 요구로부터 초월해야 한다.
②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가격도 하락해 이득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수출이 주는 부정적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다.
③ 우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강좌를 적극 계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④ 만약 처리가 늦어져 파병 시기를 놓칠 경우 파병안이 통과되더라도 파병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⑤ 북한 핵 문제로 진작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적 돌발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잠시도 긴장을 낮춰서는 안 된다.

6. <보기>는 이중모음과 받침의 발음에 대한 표준 발음 규정이다. 이 규정을 적용했을 때 발음이 <u>잘못된</u> 것은?

<보기>
a.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b.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c.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d.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e.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f.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① 곬이[골씨]
② 꽃에[꼬체]
③ 무늬[무니]
④ 실례[실례 / 실레]
⑤ 강의의[강:의의 / 강:이에]

7. 다음 글의 ㉠-㉢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 전통 사회에서는 대체로 어른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이 정보를 교육이나 지시를 통해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로를 거쳤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명령을 하면 그것을 아버지가 받아서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어머니는 그 정보를 다시 자녀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때는 정보를 가장 많이 소유한 할아버지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상이 약화되고 자녀 교육이 사회로 이전되면서 부모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정보가 공동 분배되고 있는 오늘날은, 특히 정보에 관한 한, 조부모나 부모가 예전과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새로운 첨단 정보에 관하여는 부모보다 자녀가 더 우위에 있게 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에 정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게 된 것이다. (㉢) 요즘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유연하게 정보 소통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고 그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부모 자녀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그 정보 전달의 매체도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그러면
② 그러나
③ 그런데
④ 그러므로
⑤ 그리하여

8.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언어가 되는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을'이라는 소리덩어리는 두 개의 자음과 두 개의 모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어 기호의 분절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ㅇ'은 아무런 소리값도 없는 단순한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의미를 가진 언어 형식들은 모두 소리와 의미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소리(형식)와 의미(내용)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언어 기호의 성격을 자의성(恣意性)이라고 한다.

① '새우'를 '새뱅이'라고도 하듯이 방언이 존재한다.
② '호랑이'를 '범'이라고도 하듯이 동의어가 존재한다.
③ 외래어 '컴퓨터'나 '버스'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다.
④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愚)'에서 '어리다(幼)'로 바뀌었다.
⑤ '배

(나)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먼 곳 머언 나라를 뚫어지도록 바라다보면 해가 저물어 밤은 깊은데 하염없어라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만 귀에 적시어 눈썹 기슭에 번지는 불꽃 피눈물 들어 어룽진 동정 그리운 사연 아뢰려 하여 벙어리 가슴 쥐어뜯어도 혓바늘일래 말을 잃었다 ⓒ땅을 구르며 몸부림치며 궁그르다가 다시 일어나 열리지 않는 말문이련가 하늘 우러러 ㉡돌이 되었다.

-김관식, <석상(石像)의 노래>

(다)
어느 해 봄 그늘 술자리였던가
그때 햇살이 쏟아졌던가
와르르 무너지며 햇살 아래 헝클어져 있었던가 아닌가
ⓓ다만 마음을 놓아 보낸 기억은 없다

마음들끼리는 서로 마주보았던가 아니었는가
팔 없이 안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너를 안았던가
너는 경계 없는 봄 그늘이었는가

마음은 길을 잃고
저 혼자
몽생취사하기를 바랐으나
가는 것이 문제였던가, 그래서
갔던 길마저 헝클어뜨리며 왔는가 마음아

나 마음을 보내지 않았다
더는 취하지 않아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이
날 묶어
더 이상 안녕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으나
ⓔ더 이상 안녕하지도 않았다

봄 그늘 아래 얼굴을 묻고
나 울었던가
울기를 그만두고 다시 걸었던가
나 마음을 놓아 보낸 기억만 없다

-허수경, <불취불귀(不醉不歸)>

11. 공통점을 중심으로 시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가)-(다)를 묶을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각운에 의한 운율감 형성
②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
③ 풍자적 성격의 반어적 표현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
⑤ 구조의 안정감을 위한 시구의 반복

12. ㉠은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할 때, 이와 가장 유사한 장치가 들어 있는 것은?

①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 밤 되니 작은 소리 들리네 / 눈 녹아 남쪽 시냇물이 불어나니 / 새싹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② 가을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나 / 세상에 알아주는 이 없네 / 창밖엔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 밖을 내닫네
③ 정오의 햇살은 따가운데 산 가운데 있으니 / 풀 이슬에 미투리가 흠씬 젖네 / 오래된 스님네들 살지 않고 / 흰 구름만 뜨락에 가득하구나
④ 계랑포 봄물에 뱀장어가 많을시고 / 푸른 물결 일렁일렁 활선으로 잡아 보세 / 높새바람 살랑이면 나란히 출항하여 / 마파람 불라치면 돌아올 때라네
⑤ 비 갠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13. 다음 밑줄 친 말 중, 화자와의 관계 및 내포된 정서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모든 것은 낮아서 /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 겨울 문의(文義)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②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아 /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③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 쪽에 /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④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 늘 그대 뒤를 따르던 / 길 문득 사라지고 /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 여기저기서 어린 날 /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⑤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14. ⓐ-ⓔ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다. 시를 바르게 이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진영: ⓐ는 산 속에 붉게 핀 꽃들의 생명력을 비유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
② 승운: ⓑ는 '그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네.
③ 지훈: ⓒ는 사무치는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④ 재용: ⓓ는 아직도 '너'를 잊지 않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 준다.
⑤ 지원: ⓔ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한국 사회는 내부 노동 시장에 의존한 평생직장 개념을 갖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인력 관리의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그것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력을 외부 노동 시장에서 적기에 채용하고, 저숙련 인력은 주변화하여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 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인력 관리 방식에 따라서 실업률은 계속 하락하는 동시에 주당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식 기반 산업 위주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말해 준다. 지식 기반 산업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고급 지식을 갖거나 숙련된 노동자는 더욱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즉,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은 지식 격차에 의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 우수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핵심 인력은 능력 개발 기회를 갖게 되어 '고급 기술→높은 임금→양질의 능력 개발 기회'의 선순환 구조를 갖지만, 비정규직·장기 실업자 등 주변 인력은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국가가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사회 계급 간의 간극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결국 고도 기술 사회가 온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여전히 계급 간 균열선을 따라 존재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포괄적 범위에서 강력하게 사회 정책적 개입을 추진하면 계급 간 차이를 현재보다는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아주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각국 간 발전 격차가 지속 확대되면서 전 지구적 생산의 재배치는 이미 20세기 중엽부터 진행되어 왔다. 정보 통신 기술은 지구의 자전 주기와 공간적 거리를 '장애물'에서 '이점'으로 변모시켰다. 그 결과, 전 지구적 노동 시장이 탄생하였다. 기업을 비롯한 각 사회 조직들은 국경을 넘어 인력을 충원하고,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있다. 개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생산 기능은 저개발국으로 이전되고, 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은 선진국으로 모여드는 경향은 지속·강화되어, 나라들 간 정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의거하여 전 지구 사회를 잇는 지역 간 분업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나라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국제 자본 이동과 국제 노동 이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노동 집약적 부문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현상에서 나아가, 초국적 기업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 지구에 걸친 외부 용역 대치가 이루어지고, 콜센터를 외국으로 옮기는 현상도 보편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국인 노동자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노동력 이동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발생하고 있다.

15. 위 글의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 간 노동 인력의 이동이 가져오는 폐해
② 사회 계급 간 불평등 심화 현상의 해소 방안
③ 지식 기반 산업 사회에서의 노동 시장의 변화
④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격차 축소 정책의 필요성
⑤ 기업들의 우수 인력 유치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방안

1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현재 한국 사회는 20세기와는 다른 경제 구조 속에 놓여 있다.
② 정보 통신의 기술은 사회 양극화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③ 국가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 사회 양극화의 확대를 막을 수도 있다.
④ 한 국가의 문제였던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이제 국가 간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⑤ 노동 집약적 산업의 저개발국 이동 현상의 심화는 국가 간의 정보 격차를 확대시킨다.

17. ㉠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취업률의 증가
② 소득 불평등의 심화
③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
④ 우수 인력의 비정규직화
⑤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18. ㉡의 내용을 도식화했을 때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저숙련→질 낮은 교육→낮은 임금→빈곤의 심화
② 낮은 임금→질 낮은 교육→저숙련→빈곤의 심화
③ 질 낮은 교육→저숙련→낮은 임금→빈곤의 심화
④ 빈곤의 심화→저숙련→낮은 임금→질 낮은 교육
⑤ 빈곤의 심화→낮은 임금→질 낮은 교육→저숙련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구 과학에서의 물질에 대한 탐구는 그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의 현상적 성질이 인간의 인식 범주 안에 모두 포섭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서구인이 생각한 인식의 범주란 대상이 계량화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럴 경우에만 인식되었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적 대상이 가진 성질 가운데서 면적과 부피와 무게는 수로써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색깔과 냄새와 맛 등은 수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성질은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과 수로 표현할 수 없는 성질로 구분된다고 본 것이 근대 서구인의 생각이었다. 근대의

과학과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갈릴레오와 뉴턴, 존 로크는 모두 이런 성질의 차이를 중시하여 이들을 1차 성질과 2차 성질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은 1차 성질만이 물질의 근원적인 속성이 될 수 있으며, 2차 성질은 물질의 부차적인 속성이라고 보았다. ㉠최근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과거 2차 성질이었던 색깔과 소리가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수학적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냄새나 맛까지도 수학적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근대인이 생각했던 1차 성질과 2차 성질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실제로 자연의 모든 물질이 계량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계량화하기 위하여 자연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전 과학의 정언명법인데, 실제의 자연은 변화하고 운동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운동과 물질의 경계가 붕괴되고 있다. 운동 에너지 자체가 물질이거나 물질의 내용이 에너지 덩어리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현대 입자물리학은 알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물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변화 속에 있다는 점에서 서구식의 계량화 조건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가세한 것이 시간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서구의 물질관에서 볼 때, 물질이란 시간과 독립된 본질과 속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서구 과학의 물질관은 시간의 흐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물질을 수학으로써 형상화하려면 변화하는 물질의 변이 과정을 정지 상태에 놓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일반상대성이론이 정립되면서 물질을 시간과 분리시켜서 볼 수 없다는 논의가 일반화되었다. 시간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물질의 전이와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19. 위 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서구의 물질 변천 과정
② 계량화에 의한 물질의 성질 구분
③ 물질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과학관
④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서구의 인식 변화
⑤ 시간과 물질의 상관관계를 통한 운동의 변화

20. 위 글의 내용을 <u>잘못</u> 이해한 것은?

①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물질의 파악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② 서구 과학의 물질에 대한 탐구는 물질의 화학적 변이 과정 탐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③ 근대 이전의 서구인에게 있어서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은 인식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④ 현대 물리학은 정지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내용은 단지 운동 에너지 자체일 수도 있다고 본다.
⑤ 뉴턴은 계량화될 수 없는 물질의 성질을 주목하여 2차 성질로 불렀으나 부차적인 속성으로 간주하였다.

21. ㉠을 통해 생각해 낼 수 있는 일반적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학에서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② 물질의 성질이라는 것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③ 과학의 줄기를 이루는 생각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④ 과학적 사실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변할 수 있다.
⑤ 모든 과학적 발견은 과학자의 의심에서 시작되었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부리 놓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저물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새장, 물론 수가 좋으면 괴때기 위에서 밤을 편히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 어수룩한 산골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 간 데 별로 없이 유람 겸 편답하였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음은 가슴이 답답할 만치 ⓐ<u>되우</u>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본시 역마직성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도 오 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딜 하루라고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같은 궁리를 되하고 되하였다. 마는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가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라 하였다. 그리고 저는 벼루에 먹을 갈아 붓에 찍어 들었다. 벽을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그을었다. 그 위에다 아내가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리적었다. 독이 세 개, 호미가 둘,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짚이 석 단까지. 그 담에는 제가 빚을 얻어온 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쪽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놓고. 그 옆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오십사 원을 갚을 길이 없으매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겠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도록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닫고 울타리 밑구멍으로 세 식구가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중략)

ⓑ<u>매팔자</u>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게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논 맬 걱정도, 호포 바칠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을 걱정도. 회동그라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도야지고, 닭이고, 개고,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 돈도…….

그러나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 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둬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참판이든 뻔질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홑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둬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엣, 엣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A]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삭초를 제하고 보니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 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니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없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엎치고 덮치더라고 올에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샛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배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더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였다.

-김유정, <만무방>

2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응칠이'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② '응칠이'는 시혜적인 지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③ '응칠이'의 가난은 농촌 현실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④ '응칠이'가 야반도주(夜半逃走)를 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⑤ '응칠이'는 저항 정신을 치밀하게 위장하기 위해 유랑하였다.

23. 위 글을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고 감상한 것이 아닌 것은?

<보기>

이 작품은 1935년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모 신문에 연재한 것으로, 작품 말미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 회에 수십 행 약(略)하였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일제 당국의 검열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생략된 부분은 일제 당국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생략된 내용을 유추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였다.

① 기훈: 작품을 꼼꼼히 읽어 보니, 가족이 야반도주한 상황을 두고 팔자를 고쳤다고 하는 등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② 혜진: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같이 읽어 보니, 이 작품에 나타난 식민지 시대의 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
③ 정호: 식민지 농촌의 소작 제도를 연구한 책을 참고했더니, 주요 등장인물의 가난은 개인의 나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
④ 지혜: 식민지 농촌 문제를 다룬 이광수, 이기영 등의 작품과 비교해 보니, 이 작품의 현실 인식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어.
⑤ 종철: 소설사를 읽어 보니, 동시대의 몇몇 농촌 계몽 소설처럼 이 작품도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 방안을 찾지 않은 점이 한계라고 해야겠어.

24.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날씨 묘사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수시로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장면마다 서술 시점을 바꿔 단조로운 흐름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④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다.
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25. [A]를 '웅오'의 현실 인식이라고 할 때, 다음 중 그 인식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은?

①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② 내히 죠타 ᄒᆞ고 놈 슬흔 일 ᄒᆞ지 말며 / 놈이 ᄒᆞᆫ다 ᄒᆞ고 義(의) 아니면 좃지 말니 / 우리ᄂᆞᆫ 天性(천성)을 직희여 삼긴 대로 ᄒᆞ리라
③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 산 구석에 쳐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④ 산그늘 내린 밭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⑤ 陋巷(누항) 깁푼 곳의 草幕(초막)을 지어 두고 風朝雨夕(풍조우석)에 석은 딥히 셥히 되야 셔 홉 밥 닷 홉 粥(죽)에 煙氣(연기)도 하도 할샤. 설 데인 熟冷(숙냉)애 뷘 배 쇡일 뿐이로다. 생애 이러하다 丈夫(장부) 뜻을 옴길넌가.

26. 위 글의 작중 인물이 벼를 베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7. 밑줄 친 ⓐ-ⓔ을 문맥에 맞게 풀이하지 <u>않은</u> 것은?

ⓐ 되우: 아주 몹시 ⓑ 매팔자: 매를 벌 팔자
ⓒ 근대러: 남을 비웃고 조롱하러 ⓓ 놀아서: 드물고 귀해서
ⓔ 국으로: 자기 주제에 알맞게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란 물리학적으로 볼 때 단순한 진동일 뿐이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소리는 두뇌가 주변 환경에서 이끌어내는 일종의 경험이다. 물리학자가 에너지를 잰다면 심리학자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찾는다. 물리학자는 개구리와 젖소, 그리고 인간에게 전해지는 공기 입자의 진동을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심리학자는 그러한 진동이 서로 다른 동물에게 주는 감흥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한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u>음악</u>을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두뇌가 다른 동물들의 두뇌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소리의 유형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악의 다양한 유형들을 맞추어 교향곡의 한 악장을 만든다. 서로 다른 ㉡<u>음</u>들이 묶여 단편적인 멜로디들을 만들고, 전체 멜로디로 이어진 뒤 다시 악구로 확장되었다가 긴 악절을 형성한다. 동시에 발생하는 음들은 음정으로 합쳐지고 음정은 다시 화음으로, 화음은 화성 진행으로 통합된다. 유형화한 악센트들은 리듬을 형성하고 긴장감의 대비는 크레셴도(점점 크게)와 디크레셴도(점점 약하게)로 융합된다. 우리의 두뇌가 이러한 관계들을 해독함에 따라 소리에 대한 감흥이 일어난다. 듣는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 과정 그 자체이다.

금붕어에게 왈츠를 연주해 주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금붕어가 왈츠에 따라 몸을 씰룩거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춤을 추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왈츠의 음이 아니라 그 음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금붕어는 그러한 음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기술하거나 분류하기도 어려운 이런 관계들이 바로 음악이다. 악기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진동이 음악은 아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우리 귀로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진동하는 분자들은 감흥을 지니지 않는다. 이것들로부터 인간의 두뇌는 어떤 유형을 찾아낸다. 그럴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감흥이 생겨난다.

㉢<u>우리는 어떤 이를 가리켜 음악에 대한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u> 동시에 발생하는 멜로디들, 리듬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모니들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 말이다. 개별적인 소리들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우리 신경계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면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모두 학습에 의해 다듬어진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이 덜 되면 음들의 보다 단순한 관계만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28. 위 글을 올바로 이해하지 <u>못한</u> 것은?

① 훈련이 된다면 음악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② 음악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인간 두뇌 작용의 결과이다.
③ 공기의 진동이 없는 음악은 없다. 따라서 공기의 진동 그 자체도 음악이다.
④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신경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⑤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관계를 해독하는 과정이다.

29. <보기>의 내용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기>
a. 금붕어의 귀도 모든 기본적인 진동수들을 감지해 낼 수 있다.
b. 금붕어가 좋아하는 음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다르다.
c. 금붕어에게는 오케스트라의 음들이 그저 두서없는 소리로만 들린다.
d. 금붕어의 귀에는 물 밖에서 퍼지는 오케스트라 소리가 굴절되어 들린다.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b, d

30. 밑줄 친 ㉠과 ㉡의 관계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음절 : 물체의 음향
② 소설 : 비판적 읽기
③ 조각 : 세계적인 미술관
④ 양반 : 말총으로 만든 붓
⑤ 냉방기 : 무더운 여름

31. 밑줄 친 ㉢이 강조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마음이 착한 사람이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다.
② 인격 수양을 많이 할수록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다.
③ 천성이 훌륭한 사람이 음악적 감흥을 잘 느낄 수 있다.
④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훈련할 때 사물을 잘 이해할 수 있다.
⑤ 음악에 대한 조예는 음악에 대한 마음의 훈련을 쌓을 때 깊어진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학은 인간의 삶을 다룬다. 직접적으로 삶 자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도 인간의 문제를 아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기술하는 범주도 결국은 인간의 삶이 핵심이 된다. 이 점에서 역사와 문학은 긴밀한 상호 관계에 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 다루는 범주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역사 기술의 대상은 사실적이며, 함께 규명되어야 할 제도적·물질적·정신적 현실 구조 관계를 이미 지니고 있다. 역사 기술은 이러한 현실적 구조 속에서 과거의 사실이 지니는 진실, 즉 역사 그 자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 서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단적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문학은 '일어날 수 있었던, 또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문학이 다루는 대상은 허구적이어서 역사처럼 현실 구조 속에 묶이지 않는다. 역사가 과거 사실의 사실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문학은 인간 그 자체의 본질을 무한한 자유 속에서 추구하는 점이 다르다.

역사와 문학은 제각기 인간의 삶의 모습을 수용하는 관점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문학은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구조를 벗어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삶의 본질을 파악하고 의미를 발견해 낸다. 과거의 집적물로서의 역사가 현실의 카오스를 체계화한 것이라면 문학은 카오스로서의 현실을 선별하고 배열함으로써 뜻매김을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동시적 질서 속에서 무수하게 생성되고 있는 카오스인 것이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현실이고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도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현상들은 모두 현실인 것이다. 역사는 이 무수한 현실의 카오스를 객관화하고 그것들의 흐름을 선별하여 기록한다. 실재했던 사실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문학가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을 취급할 때 그 줄거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작가의 허구와 상상으로 실재했던 사건이나 인물의 여백을 메워 나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가치와 의미를 작가가 발견하기도 하고 뜻매김을 새롭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의 문학적 수용이 역사 쪽에서 볼 때는 '비역사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문학 쪽에서 보면 역사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과 문학적 현실의 차이점이 명확해진다. [A]

3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③ 대립되고 있는 두 견해를 소개한 후 통합하고 있다.
④ 사례를 들어 필자의 입장을 단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이론의 전개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고찰하고 있다.

33. 위 글을 올바로 이해한 학생의 말로 볼 수 <u>없는</u> 것은?

① 찬의: 역사가 인간의 삶을 다룬다는 면에서 문학과 통하는군.
② 병민: 맞아, 그런 면에서 인간의 삶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역사라고 할 수 없어.
③ 태훈: 역사의 대상은 과거의 사실로 한정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④ 광래: 나는 문학가의 상상력이 문학을 허구로 만든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
⑤ 영석: 아울러서 역사와 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지.

34. 위 글을 읽고 '문학'을 정의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단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개연성
② 객관화
③ 의미 부여
④ 개인의 문제
⑤ 새로운 가치 발견

35. 위 글의 문맥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실이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면, 문학적 현실은 문학가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② 현실이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의 세계라면, 문학적 현실은 예측 가능한 질서와 진리의 세계이다.
③ 현실이 변개 가능한 열린 카오스의 세계라면, 문학적 현실은 변개 불가능한 닫힌 카오스의 세계이다.
④ 현실이 동시적 질서 속에 있는 다른 차원의 무질서인 카오스라면, 문학적 현실은 완전한 질서가 부여된 카오스의 세계이다.
⑤ 현실이 동시적 질서 속에 뒤섞인 사건들의 카오스라면, 문학적 현실은 문학가에 의해 선별되고 배열됨으로써 의미가 부여된 현실이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의 우수성은 특히 그 제자(製字) 원리에 있다. 한글의 제자 원리는 얼마나 우수한가? 훈민정음 연구로 학위를 받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게리 레드야드는 그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찬탄했다. "글자 모양과 기능을 관련시킨다는 착상과 그 착상을 실현한 방식에 정녕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유구하고 다양한 문자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그 글자 모양 자체가 그 소리와 관련된 조음 기관을 본뜬 것이라니, 이것은 견줄 데 없는 언어학적 호사다."

레드야드가 지적했듯, 한글의 닿소리 글자들은 조음 기관을 본떴다. 예컨대 'ㄱ'과 'ㄴ'은 각각 이 글자들에 해당하는 소리를 낼 때 작용하는 혀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ㅁ'은 입모양을, 'ㅅ'은 이[齒] 모양을, 'ㅇ'은 목구멍을 본뜬 것이다. 조음 기관의 생김새를 본떠 글자를 만든다는 착상은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했다는 레드야드의 말은 무슨 뜻인가?

조음 기관을 본뜬 기본 글자 다섯(ㄱ, ㄴ, ㅁ, ㅅ, ㅇ)에다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 나는 곳은 같되 소리의 세기(厲)가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 냈다는 뜻이다. 예컨대 연구개음(어금닛소리) 글자의 경우, 예사소리인 'ㄱ'에 획을 더해 같은 연구개음이되 거센소리 글자인 'ㅋ'을 만들고, 양순음(입술소리) 글자의 경우에도 'ㅁ'에 획을 차례로 더해 같은 양순음으로서 이보다 소리가 센 'ㅂ'과 'ㅍ'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로마 문자와 비교해 보면 한글에 함축된 음운학 지식이 얼마나 깊고 정교한지 금방 드러난다. 예컨대 이나 잇몸에 혀를 댔다 떼면서 내는 소리들을 로마 문자로는 N, D, T로 표시하는데, 이 글자들 사이에는 형태적 유사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한글은 이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를 'ㄴ, ㄷ, ㅌ'처럼 형태를 비슷하게 만듦으로써, ㉢이 소리들이 비록 다른 자질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소리 나는 곳이 같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준다.

즉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대 언어학자들처럼 음소를 다시 자질로 나눌 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한글을 로마 문자 같은 음소 문자보다 더 나아간 자질 문자라고 불렀다. 언어학적 호사의 극치라는 레드야드의 찬탄은 과장이 아니다.

3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닿소리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그것을 발음하는 기관과 모양이 닮았다.
② 음운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③ 같은 종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끼리 그 모양이 비슷하다.
④ 소리의 자질에 따라 글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⑤ 모양이 간단하고 나타낼 수 있는 소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37. 밑줄 친 ㉠을 대신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연　② 대관절　③ 예컨대
④ 정말로　⑤ 하물며

38. 밑줄 친 ㉡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a. 소리의 세기 분석
b. 받침소리의 특성 이해
c. 소리의 변동 규칙 파악
d. 소리 나는 곳에 따른 소리의 분류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b, d

39. 밑줄 친 ㉢의 예로 적절한 것은?

① ㄴ, ㄹ, ㅇ　　② ㄷ, ㅅ, ㅈ
③ ㅁ, ㅂ, ㅍ　　④ ㄱ, ㅋ, ㅎ
⑤ ㅋ, ㅌ, ㅍ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면에 나서서 행동하지 못하고 배후에서 ⓐ동정자나 후원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곁의 사람이 엿보지 못할 고민이 있다. 그네들의 속으로 벗고 뛰어들어서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하지 못하는 곳에 ⓑ창백한 인텔리로서의 탄식이 있다.

나는 ㉠농촌을 제재(題材)로 한 작품을 두어 편이나 썼다. 그러나 나 자신은 농민도 아니요, 농촌 운동자도 아니다. 이른바, 작가는 자연과 인물을 보고 느낀 대로 스케치판에 옮기는 화가와 같이, 아무것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처지에 몸을 두어 오직 관조(觀照)의 세계에만 살아야 하는 종류의 인간인지도 모른다. 또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에 입각해서 전적(全的) 존재의 의의를 방불케 하는 재주가 예술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위에 기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예술가의 무리는, 현실 사회에 있어서 한 군데도 쓸모가 없는 ⓒ부유층(蜉蝣層)에 속한다. 너무나 고답적이요, 비생산적이어서 몹시 거추장스러운 존재다. 시각(視角)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호의로 바라본다면 세속의 누(累)를 떨쳐 버리고 오색 구름을 타고서 고왕독맥(孤往獨驀)하려는 기개가 부러울 것도 같으나 기실은 단 하루도 입에 거미줄을 치고는 살지 못하는 나약(懦弱)한 인간이다. “귀족들이 좀 더 잰 체하고 뽐내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측간(厠間)에 오르기 때문이다.”라고 뾰족한 소리를 한 아쿠타가와(芥川)의 말이 생각나거니와 예술가라고 결코 특수 부락(特殊部落)의 백성도 아니요,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일민(逸民)도 아닌 것이다.

적지않이 탈선이 되었지만 백 가지 천 가지 골이 아픈 이론보다도 한 가지나마 실행하는 사람을 숭앙하고 싶다. 살살 입술발림만 하고 턱 밑의 먼지만 톡톡 털고 앉은 ⓓ백 명의 이론가, 천 명의 예술가보다도 우리에게는 단 한 사람의 ⓔ농촌 청년이 소중하다. 시래기죽을 먹고 겨우내 ‘가갸거겨’를 가르치는 것을 천직이나 의무로 여기는 ㉡순진한 계몽운동자는 히틀러, 무솔리니 못지않은 ㉢조선의 영웅이다.

나는 영웅을 숭배하기는커녕 그 얼굴에 침을 뱉고자 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농촌의 소영웅(小英雄)들 앞에서는 머리를 들지 못한다. 그네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기 때문이다.

- 심훈, <조선의 영웅>

40. 위 글에서 예찬하고 있는 대상과 <보기>에서 밑줄 친 대상의 공통점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보기>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구에게 /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 연탄차가 부릉부릉 /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 생각하면 / 삶이란 /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안도현, <연탄 한 장>

①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음.
②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통을 인내함.
③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함 .
④ 모진 시련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희망함.
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

41. <보기>는 소설 공모 광고의 일부이다. ㉠이 이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라고 할 때, 작품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 신문사는 농촌 계몽 운동인 ‘브 나로드’ 운동에 호응하는 농민 소설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란다.

a. 조선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야 한다.
b. 주요 인물은 조선 청년으로서 진취적인 성격으로 설정한다.
c. 과격한 농민 운동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① 농촌 청년과 처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 조선 농촌의 활력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일 것이다.
② 조선 농민을 위해, 도회지의 삶보다는 농촌의 전원생활이 더 인간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작품일 것이다.
③ 조선의 농민을 구하는 길을 찾지 못해 탄식하며 좌절하는 조선 청년의 내면 심리를 여실하게 그린 작품일 것이다.
④ 조선 농민의 문제는 소작 제도에 있으므로 이를 개혁하기 위한 농촌 청년들의 집단적인 투쟁 운동을 담은 작품일 것이다.
⑤ 도회지 청년들이 큰 뜻을 품고 조선의 농촌으로 내려가 농민들에게 문자 보급을 통한 계몽 운동을 펼치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작품일 것이다.

42. ㉡의 삶과 <보기>에서 촉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는 공통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치를 통해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보기>

이에 우리 사대부들이 먼저 감연(敢然)히 의병을 일으키고 그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는 공경(公卿)에서 아래로는 서민에까지 어느 누가 애절한 뜻이 없겠는가.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위급한 때이니, 각기 짚자리에 잠자고 창을 베개 삼고, 또한 끓는 물,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 세상을 안정하게 하여, 세월이 다시 밝아지면 어찌 한 나라에 대한 공로로만 그치겠는가. 실로 후세에까지 칭송을 들을 것이다.

이제 이같이 글월을 보내어 회유한 뒤에 혹 영(令)을 어기는 자 있으면, 저 역적들과 한패로 보아 단연코 군사를 보내 토벌하리니 각기 가슴 속에 새겨 두어 *서제(噬臍)의 뉘우침이 없도록 부디 다 함께 성심껏 큰 뜻을 펴기를 바랄 따름이다.

*서제(噬臍): 일이 지난 뒤에 후회하는 일

-유인석, <창의문>

① 그림의 떡 ② 눈뜬 장님 ③ 말은 앵무새
④ 개 발에 편자 ⑤ 꿀 먹은 벙어리

43. ⓐ-ⓔ 중, ㉢에 부합하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자에 인터넷이나 이런저런 관련 통신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자녀의 전화 사용으로 부모가 배달된 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너무나 큰 액수에 놀란다는 이야기는 ㉠보통의 현상이 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 청소년의 대인 관계에 대한 기피 현상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어째서 문제점으로 인식될 정도로 청소년 자녀들이 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직접적인 대면시간이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라는 매체가 심리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간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화가 직접적인 대면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먼저 전화로는 심리적으로 자기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비밀성이 있다. 또 상대와 직접 대면하는 것과는 달리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 등을 읽을 수 없고, 동시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또한 전화는 현실성에서 떨어져 자유로울 수 있고 때로는 자기를 위장 표현할 수 있는 가면성(假面性)이라는 특징도 있다. 따라서 평소에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전화에서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얌전한 사람이 과감하게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사람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전화 다이얼은 비대면적 환경 하에서 전화라는 매체가 심리적으로 주는 특징이 *노현(露顯)으로 구현화된 사회 현상이며 현대 사회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노현(露顯): 비밀이나 비행의 폭로

44. 위 글의 설명 방식을 <u>잘못</u> 말한 것은?

① 논의 대상의 특성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로 들고 있다.
③ 논의 대상 간의 차이점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④ 제시된 기준에 따라 논제를 나누거나 묶어서 전개하고 있다.
⑤ 스스로 묻고 그것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45. ㉠과 같은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일비재(非一非再)
② 우공이산(愚公移山)
③ 새옹지마(塞翁之馬)
④ 권토중래(捲土重來)
⑤ 다다익선(多多益善)

46. ㉡의 예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그 말에 <u>귀가 번쩍 뜨여서</u> 그때부터 공부에 매진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② 영수는 빙판에서 넘어진 철수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u>혀를 날름거리고</u> 도망갔다.
③ 놀림을 참던 영희가 갑자기 일어나 아이들에게 <u>눈총을 쏘더니</u> 밖으로 나가 버렸다.
④ 올림픽 입장식에서 한국 선수들은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 <u>손을 번쩍 들어 흔들었다.</u>
⑤ 동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폭로한 민우를 향해 <u>주먹을 들었다가</u> 이내 내려 버렸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음악의 오페라는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서 무대 장치나 무대 의상을 컨테이너 수십 대분이나 사용하면서도 오페라를 듣는다고 표현하듯이 동양에서는 그림을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상 '그림은 읽는 것'이었다.

'그림을 읽는다'라는 말은 (㉠)는 말이다. 그래야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의 의취(意趣)를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림을 문자 또는 문장으로 바꾸어 읽는 그림이 많았었다. 이것은 화조도(花鳥圖, 꽃과 새를 그린 그림),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 접시 병 등 그릇과 꺾어 놓은 꽃가지를 그린 그림), 초충도(草蟲圖, 풀과 벌레 등을 그린 그림)외에 산수화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많다.

그런데,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인 약 300년 전부터 그 원리가 잊히기 시작하였고 - 그래도 1920년대까지는 지속되었다 - 일제와 더불어 유입된 서양미술사조에 가려져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 잊힌 상태다.

필자는 1976년부터 틈틈이 고래로 한·중·일 동양 삼국에서 그려진 그림에 나타난 소재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식물이 약 300가지, 동물이 200가지 정도 되었고, 인물도 성별, 연령, 신분별로 가능한 한 수집하여 ㉡분류하였다. 이들 동·식물에 대하여 생물학적 분류를 찾아보고 학명을 확인하는 동안 이들이 서로 화면에서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해오라기(白鷺)는 반드시 시든 연밭에 그려지며, 게는 갈대와 함께 그린다는 것 등이다.

이런 형식들을 짝짓는 과정에서, 그 짝이 독화하기 위한 방법에 의하여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림이 읽힐 수 있도록 소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도 그려진 것이다.

47.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양의 그림을 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오페라처럼 주변 장치가 필요하겠군.
② 동양의 그림은 자연 과학적 측면이 강하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동양의 그림은 음악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므로 음악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고 감상해야겠군.
④ 동양의 그림은 생물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이니만큼 바른 감상을 위해서는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군.
⑤ 동양의 그림은 소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군.

48.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림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
② 그림의 소재를 확인해 본다.
③ 그림을 글자로 바꾸어 본다.
④ 그림을 있는 그대로 감상해 본다.
⑤ 그림을 규범에 맞게 감상해 본다.

49. ㉡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① 향가, 고려 가요, 시조는 운문이고, 가전체 문학, 소설, 평론은 산문이다.
② 우리는 지금 문학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창작을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다.
③ 연극은 공간의 제약이 강한 반면에 영화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④ 김동인은 1925년에 '명문', '감자', '시골 황서방'과 같은 작품을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⑤ 시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시침, 분침, 자판, 태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0. ㉢의 예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보기>

a. 4월 초에 피는 목련꽃과 6월에 피는 해당화를 한 화면에 만개한 것으로 그린다.
b. 모란꽃 옆에 고양이를 그릴 때는 나비와 함께 그려 '오래도록 부귀를 누린다'는 뜻을 나타낸다.
c.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에 겨울 깃털을 한 수컷 원앙을 그려 넣어 연생귀자(連生貴子)로 읽게 한다.
d. 개는 욕설에 자주 사용되는 등 결코 존중 받았던 적이 없으면서도 그림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e. 오리를 그릴 때는 대개 버드나무 밑에서 두 마리가 헤엄치는 것으로 그리는 데 반해, 백로는 한 마리만 그려 넣는다.

① a, b ② a, c ③ b, c
④ c, d ⑤ d, e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